

- 주요 뉴스: 미국 주가, PCE 물가지수 상승세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완화로 상승 지속
 - 미국, 4월 개인소비지출(PCE) 전월대비 0.9% 상승하며 예상치(0.8%) 상회
 - 테코스 ECB 정책위원, 금리인상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필요
 - 인민은행, 6.30일부터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거래소 채권시장을 개방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위험선호 강화

주가 상승[+2.5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보합[-1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상승세 지속
유로 Stoxx600지수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등으로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위험선호 분위기에서 안전자산 매수심리가 낮아지며 약세
유로화 가치는 0.1% 상승, 엔화는 보합
 - 금리: 미국 국채 금리는 보합권 혼조 양상. 메모리얼데이를 앞두고 조기마감(pm2시)
독일도 월말 매수세 유입 등으로 수익률에 하방압력이 증가하며 4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52.7원, -7.9원) 0.6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5/27일	5/26일	전일대비			5/27일	5/2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158.2	4057.8	2.47%	국채 금리 10y	미국	2.74%	2.75%	-1bp
	유럽	443.93	437.71	1.42%		독일	0.96%	1.00%	-4bp
	중국	3130.2	3123.1	0.23%	CDS 5y	한국	46bp	45bp	1bp
	일본	26781.7	26604.8	0.66%		중국	71bp	71bp	1bp
	한국	2638.1	2612.5	0.98%	위험 지표	EMBI+	-	398	-
환율	달러지수	101.64	101.83	-0.19%		VIX	25.72	27.50	-6.47%
	유로화	1.0735	1.0725	0.09%		WTI유	115.07	114.09	0.86%
	엔화	127.11	127.12	0.01%	원자재	구리	430.65	425.5	1.21%
	위안화	6.6994	6.7389	0.59%		금	1853.7	1850.6	0.17%
	원화	1256.2	1267	0.86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, 4월 개인소비지출(PCE) 전월대비 0.9% 상승하며 예상치(0.8%) 상회

- 물가변동효과를 제거한 실질 PCE는 예상에 부합하는 전월비 0.7% 상승을 기록. 한편 4월 개인소득은 전월비 0.4% 상승으로 예상치(0.5%)를 하회하였고,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전월비 보합(0.0%). 개인저축은 4.4%로 '08.9월 이후 최저치
-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 기준지표인 PCE 물가지수는 전월비 0.2%상승하며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, 전년동월비는 6.3% 상승하며 3월 수치(6.6%)보다 낮아지며 물가 상승세가 주춤해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
- 하지만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는 5월 58.4로 전월대비 6.8pt 하락하며 '11.8월 이후 최저치. 6개월 뒤를 전망하는 미래기대지수(55.2)와 현재상황 평가지수(63.3) 모두 잠정치보다 하향 조정
- 미시건대는 지수 하락이 주택 및 내구재 관련 소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중산층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꺾였다고 분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데코스 ECB 정책위원, 금리인상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필요

-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. 통화정책은 준비된 가이드 라인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
- 인플레이션은 몇 달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, 점진적으로 목표치에 근접할 전망. 또한 자산 매입은 3분기에 종료되어야 하며 이후 금리인상을 논의
- 반면 요하임 나겔 ECB 정책위원은 7월 첫 금리인상 이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. 독일 경제의 금년 2% 성장을 전망하는 등 경기상황이 견고하다고 판단했으며,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

■ 인민은행, 6.30일부터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거래소 채권시장을 개방

- 중국 채권시장은 은행간시장(OTC)과 거래소시장(장내)으로 나뉘는데, 적격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장외시장과 더불어 6월말부터 장내시장도 개방

-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하거나 채권통을 통해 중국 채권을 매매 가능. 이번 조치는 중국의 자본유입 확대와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■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,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부채를 지속 상환 의지

-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 디폴트를 유도하고 있으나, 러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차입자라는 평판을 유지하여 러시아에 대한 자본통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부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할 예정

■ 대만 정부, 금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(4.42%→3.91%)

-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중국 본토의 성장률도 코로나19 봉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

■ Mizutori 유엔 재난 위험 사무국장, 재난 예방과 관련 자원 조달 필요성 강조

- 남아공 홍수, 인도 폭염 등 세계적으로 재난 위험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, 재난으로 인한 사상자 등을 감안하면 선진국은 연간 GDP의 0.1~0.3% 가량이 타격받으나, 신흥국의 경우 1%가 소실되는 것으로 추정
- '10~19년중 재난 예산 \$1,330억중 예방에 사용되는 예산은 4%에 불과하고, 나머지 예산은 사고 이후 대응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예방을 위한 자원 조달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

■ 중국 외교부,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한다고 비판

- 미국은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언급.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 회담 가능성도 현재로서 없다고 발표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5/30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5월 소비자기대지수(최종치), 독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(잠정치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053, E-mail jchwang@kcif.or.kr